



2020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2020년 09월 01일 (화) ~ 11월 22일 (일)까지

풍수해보험 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풍수해보험 혜택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목차

2020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 당선작

아버지의 안심보호막	04
풍수해보험으로 태풍피해 대응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09
태풍 루사의 기억, 풍수해보험이 없었더라면...	13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 날까지, 풍수해보험 화이팅!	16
풍수해보험으로 다시 찾은 삶	20
진화하는 풍수해보험 보상제도	22
할머니의 따뜻한 눈물	24
나의 풍수해보험 이야기	27
자연피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30
풍수해보험, 꼼꼼하게 가입하고 알차게 보상받으세요!	33
태풍이가 즐겨찾는 우리동네	36
풍수해보험으로 느낀 자연과 삶의 가치	39
코로나19 시대에 필수품은 마스크! 소상공인들을 위한 필수품은 풍수해보험!	42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낸 태풍피해	45
풍수해보험, 일단 한번 가입해보시라니까요!	47

2020 풍수해보험 안내 및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안내 및 가입방법	50
-----------------	----



아버지의 안심보호막

온실가입자 임○영님

더운 여름날이었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 시골에 계신 아버지 일을 거들어 드리려 아버지가 계신 논으로 향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처럼 동네 특산물인 쌀 미나리가 매일 매일 아버지의 손길을 거쳐서 쭉쭉 커가고 있을 터였다. 한달음에 달려간 논에서 웬일인지 아버지가 쌀 미나리가 크고 있는 비닐하우스 구석에 앉아 작은 칼을 만지작

거리고 계셨다.

“아버지, 날도 더운데 뭐해요?”

오랜만에 아들은 본 아버지의 반가운 표정도 잠시, 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하네...”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나 또한 한숨이 절로 나왔다. 2003년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 태풍 자체가 역대급이었지만 공교롭게 태풍 경로 중심에 우리 동네가 있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강풍과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세차게 내린 비에 동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집도 들도 물에 잠기고, 지붕이란 지붕은 모조리 뜯겨 온 동네 사람들이 뜬눈으로 마을 회관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었다. 그때 우리 집도 물에 잠겨 피해를 보았지만, 무엇보다 뼈아팠던 일은 아버지의 비닐하우스였다.

옛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파이프와 온데간데없이 찢어진 비닐. 비닐하우스는 양상하게 휘어진 뼈대만 남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참담했었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는 정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가 먹고 살길은 다시 농사를 짓는 일이니, 비닐하우스는 다시 지으면 되지만, 부서진 비닐하우스도 농협에 용자를 내서 지었으니 결국 빚을 더 내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마는 아버지 성격에 이전보다 더 튼튼한 비닐하우스가 지어졌고, 작게나마 용자금을 해마다 갚아서 지금은 빚도 없을 터였지만, 아버지에게는 태풍 ‘매미’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그 태풍이 다시 온다고 하니 아버지는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듯했다.

“오는 태풍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해봐야 답도 없고, 오늘 온 김에 단속이나

“잘해야겠네요. 근데 그 칼은 뭐 하려고요?”

“이걸로 비닐하우스에 비닐이라도 벗기려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태풍에 비닐하우스가 다시 부서질까 봐 비닐이라도 벗기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는 100미터 길이에 3동. 비닐을 벗기는 일은 만만치 않고, 이 여름에 다시 비닐을 덮는 건 더욱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닥쳐오는 태풍에 비닐 값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냥 두자는 내 의견에, 피해를 키울 수 없다는 아버지가 맞서고, 결국 예측할 수는 없지만, 태풍 때미 때처럼 피해를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난 더는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비닐을 벗기는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더운 여름날에 목이 마르고 땀이 비 오듯 해도 선뜻 아버지에게 쉬자는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웠다.

“아버지, 비닐하우스 안 하면 안 돼요?”

시작한 지 두 시간도 안 돼 힘이 들어 입이 튀어나온 내 투정에 그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다.

“벼농사가 돈이 돼야 말이지.”

뻘한 질문에 뻘한 대답, 결국 시작과 끝은 돈이었다. 시골에서 돈이 되는 농사는 비닐하우스밖에 없기에 힘이 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온종일 힘들여서 비닐을 벗겨내고, 이튿날 태풍이 찾아왔다. 그런데 정말 아무 피해 없이(?) 후다닥 태풍은 지나갔고, 난 의기양양하게 다시 아버지 비닐하우스를 찾아갔다.

“거참 아버지, 그냥 놔두자니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모양새였지만 아버지는 너털웃음을 지으셨다.

“그만하길 다행이지. 비닐 벗겨놔서 맘고생은 덜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렇게 작은 소동이 지나가고 이듬해 봄이었다.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동료와 작년에 태풍 때 겪은 일을 얘기하다 풍수해보험 이야기가 나왔다.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 해줘서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적고, 태풍 등 풍수해를 피해를 봤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었다.

“뭐 하러 이런데 아까운 돈을 쓰는 거냐. 보험은 보험회사 배만 불러주는 거라고”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난 효자 아들 노릇하고 싶다며 아버지를 설득했다. 풍수해보험회사로 연락해 간단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최종 개인부담금을 입금하는 순서로 풍수해보험은 손쉽게 가입되었다.

“아버지!, 보험금 나오면 딱 반 주세요”

이렇게 너스레를 떠니 아버지는 “반이 아니라 너 다 줄게”라며 장담 아닌 장담을 하신다. 다시 여름이 찾아왔고, 태풍이 북상한다는 기상청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 아버지를 찾아갔다. 지난번 태풍처럼 비닐을 벗겨낼지 걱정이 앞서 찾아간 거였지만 아버지는 다행스럽게도 지켜보자고 한발 물러서셨다. 난 이리려고 풍수해보험 가입한 거라고 큰소리치고 다시 집으로 왔지만 내심 걱정이 돼서 기상청 예보에 촉각을 기울였다. 태풍이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제법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버지께 전화했다.

“아버지, 별일 없는가요?”

걱정스러운 내 말에 아버지는 의외로 밝게 대답하셨다

“어. 피해는 좀 있어, 비닐하우스 부서진 건 아닌데 비닐이 다 벗겨졌어.”

불행 중 다행인데, 아버지가 밝게 얘기하는 게 좀 의외였다.

“좀 전에 보험회사에서 다녀갔는데 30만원정도 비닐 값 보상이 된다네” 나도 그제야 보험계약내용이 떠올랐다. 비닐파손도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럼 아버지 약속대로 보험금 나한테 주세요.”

“이번 주에 내려오너라. 비닐 싹워야 하니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이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니 아버지가 풍수해보험 가입한 일에 대해 몇 번이고 얘기하셨다고 한다. 이웃에 보험 가입을 권하기까지 하셨다니 나까지 흐뭇해졌다. 한번 보험 가입으로 1년 내내 풍수해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깨알 같은 보상 규정이라니... 정말 대만족이다. 날씨가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그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지금, 우리 아버지의 안심 보호막은 여전히 잘 가동되고 있다. 안심이다.



풍수해보험으로 태풍피해 대응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설계사 박ㅇ 룰님

2018년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한 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설계사 일을 시작할 때는 일반적인 보험상품만 판매하였고, 그러다 1년이 다 되어가는 2019년 5월쯤 먼저 입사한 선배님이 비록 영업수익이 적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으로 같이 영업활동을 다니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고객 확보를 위해 풍수해보험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곳은 *포 △△상가 일대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돌아다녔지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시점이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홍보지를 드려도 한쪽에 던져놓기 일쑤였습니다.

*포 △△상가는 ‘비만 오면 잠기는 한국의 베네치아’ 라는 오명이 붙은 지역이었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풍수해보험 소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홍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한 분이 가입하셨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보니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한몫 한 것 같습니다. 1호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횃집 사장님인데, 며칠 후 다른 횃집 사장님과 자전거 대여를 해 주는 사장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포 △△상가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던 사장님 중 몇 분이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침수피해를 보았습니다.

자전거 대여 상가는 피해가 크지 않아 4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횃집 2곳은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사장님들이 내는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상당한 보험금을 받는 것에 저로서도 엄청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 고객님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고, 저에게도 2019년 가을은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보신 사장님들이 가게 수리를 하시고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2019년에 태풍 피해를 본 사장님들은 저를 찾기 시작하였고, 매주 2회 정도 상가 일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장님들의 근심이 커지기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되니, 영업활동을 하려고 찾아 뵙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2019년에 태풍피해를 본 사장님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가을이 왔고, 2020년 9월 초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지역을 덮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포 △△상가의 총 19곳이 태풍피해를 보게 되어서 저와 사장님들은 근심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9년 풍수해보험 보상처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접수부터 증거자료 남기기 등 빠르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10호 태풍 하이선도 또 상가 일대를 뒤집고 갔습니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연속 피해를 입어 이번엔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초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연속 2번의 태풍 피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빠른 사고접수와 피해 상황 확인, 그리고 사장님들의 뉘두리를 들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도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빠르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9월 사고가 지나간 후에도 풍수해보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접수 등으로 정신 없는 시간을 보냈고, 현재는 보험금도 속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도 빠르게 보상처리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풍수해보험으로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며, 보험금을 받은 사장님들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은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며 본인과 자녀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텐데, 풍수해보험 덕분에 조금이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어 저는 그분들을 도와드린 것에 대해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풍수해보험을 아는 분들이 많아졌고, 국가의 지원금도 커져서 설계사인 저는 더욱 감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을 알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기억, 풍수해보험이 없었더라면...

주택가입자 홍○현님

2020년 가을의 강릉은 그 어느 때보다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 그리고 투명한 바다가 일품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도 점차 짙어지고 바다는 더욱더 투명해지며 하늘은 더없이 높아지는 이 시간을 즐기다 문득 지난 2002년 여름에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

니다. 2002년 하면 모두가 월드컵을 떠올리겠지만 저에게는 자연의 놀라움도 함께 남아있는 그런 한해입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는 우리 집에 정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바로 앞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가 있어 사람들이 바닷가집이라 불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내리는 비에 저녁에는 급기야 집에 전기도 나가버리고 순식간에 불어난 비에 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급하게 몸만 빠져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대피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비가 잦아들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안은 온통 물바다였고 백사장은 밀려든 온갖 쓰레기로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남들과 달리 자연재해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에 보상을 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처음 가입할 당시 전체 보험료는 101,000원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45,400원 정도였고 나머지 55,0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016년 7월 처음 가입을 시작으로, 매년 7월이 되기 전에 우리는 OO보험사를 통해 갱신했습니다. 보험료는 점차 낮아졌고, 2020년 계약에서는 본인 부담액이 9,200원 정도이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30,000원 정도였습니다.

강릉시처럼 바다에 인접하고, 대관령의 영향으로 겨울에 폭설도 잦은 지역에서 이런 좋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 후 지난 5년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올해 여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 사이 벌어진 일이지만 강한 돌풍으로 지붕이 날라가고 그 날라간 틈으로 비가 새어 집 천장과 벽면은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풍이 지나간 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청구한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 손해사정사가 집에 방문하여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지붕을 전부 뜯고 새로 고칠 생각입니다. 비록 돈은 좀 더 보태야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집을 고치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좋은 보험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직접 보상을 받아보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방법 중 풍수해보험보다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보상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특히 피해를 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만 보던 자연이 인간에게 때로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풍수해보험을 통해 준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 날까지, 풍수해보험 파이팅!

설계사 장○한님

청춘한옥펜션 대표 : 네? 보험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뻘었니까
가보세요~ 관심 없어요~

장○한 : 잠시만요~ 대표님~! 잠시만요~ 1~2분 정도만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큰 사고에 대비하셔야죠~! 게다가 보험료의 92%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정책보험이라 내용을 조금만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청춘한옥펜션 대표 :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라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요?

장○한 : 네~!! 들어보신 적 없으셨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라는 보험인데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원율이라 대표님께서도 보험료의 8%인 2~3만 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가입되면 1년 동안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들이 있을 때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청춘한옥펜션 대표 : 1년 보험료가 2~3만 원이란 소리예요? 풍수해보험이 뭔데요?

장○한 : 아이고, 대표님 이제야 제 얘기를 들어주시네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국가정책보험인데요~! 올해부터는 숙박업 사업자인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이 좋은 보험을 홍보하고자 서울에서 경주까지 내려왔어요~!

청춘한옥펜션 대표 : 서울에서요? 멀리에서도 오셨네요. 자연재해는 뭔데요? 태풍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장○한 : 네!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태풍뿐만 아니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그리고 지진에 의한 피해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청춘한옥펜션 대표 : 아니 근데, 여기 경주는 지금까지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장○한 : 대표님! 지금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해져서 언제, 어떤 자연재해가 갑자기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고가 언제 예고하고서 오던가요? 1년에 2~3만 원으로 부담 없는 금액이에요! 치킨 1마리 덜 드셨다고 생각하시고 서둘러 가입을 검토해 보셔야 해요! 만약에 이번 달에 가입자가 많아서 경주시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

다음 달부터는 더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기상청에서 태풍 예보가 발생하면 가입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요!!

청춘한옥펜션 대표 : 그래요?? 1년에 2~3만 원이면 저렴하긴 하네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장○한 : 네 대표님 이렇게... (중략)

2020년 올해 여름은 무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해 서울에서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를 홍보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는데요, 제가 2020년 11월에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지 못하니 차선책으로 후보에 넣어뒀던 국내 여행지가 경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관광단지로 유명한 경주 시내의 많은 숙박업소가 떠올랐고, 서둘러 경주로 내려가 진심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홍보를 하며, 많은 숙박업소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8월 말부터 시작된 마이삭, 하이삭 등 강력한 태풍들이 부산을 거쳐 경상도 지역을 강타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곳곳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경주지역 숙박업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종일 사고접수 전화를 받아야 했고 대표님들의 하소연도 들어줘야 했습니다.

위의 대화에서 인용한 청춘한옥펜션은 252만 원 이라는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아, 펜션 테마에 맞게 지어진 건물들의 피해를 서둘러 수리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펜션업종 특성상 여름철 성수기 영업으로 1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빠른 사고접수와 빠른 보상금 지급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펜션에 가장 큰 현실적인 도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당 펜션을 포함하여 10월 31일 현재까지 태풍에 의한 사고접수 총 50건 중 보상금이 지급된 펜션이 11건이고 그 액수로는 약 3,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31건의 사고들이 보상금 지급 여부 검토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건 곧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2020년 여름, 경주지역 숙박업소 대표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 같아 너무 보람차고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주 외에도 피해가 컸던 지역들도 지자체의 높은 지원율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사례를 통해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지자체의 지원율이 많이 높아져서 전국 모든 지역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혜택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마디 외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 날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파이팅~!



풍수해보험으로 다시 찾은 삶

소상공인 노○희님

저는 OO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올해 초여름, 거리에 걸려있는 풍수해보험 플래카드에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풍수해 관련 보험은 침수지역은 잘 가입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매년 태풍 때 마다 물에 잠기는 우리 지역 사람들도 과연 가입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든 보험이란 생각에 나도 한번 알아는 보자는 마음으로 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상냥하게 안내를 잘해준 덕에 보험사를 정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태풍 피해

에 어느 정도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도 무섭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변 이웃들이 물난리를 겪는 것을 수없이 보다 보니, 태풍에 대한 무서움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긴 장마와 연속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닥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이 감소하여 매출이 떨어지는 우울한 나날이었습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때문에 가게가 물에 잠겼고, 식탁 등 집기들을 밖으로 옮기고 바닥에 차오른 물을 빼내며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아끼는 물건과 남이 모르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며칠 후, 옆집은 시청에서 재난지원금으로 2백만 원이 나올 거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문자가 오지 않아서 기다림 속에서 애를 태웠는데, 먼저 연락이 온 건 풍수해보험 설계사님이었습니다.

침수로 피해를 본 물건들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재난지원금의 몇 배가 되는 보상을 받았는데, 풍수해보험이 없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지.... 이 보상금으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생각입니다. 부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하는 풍수해보험 보상제도

설계사 맹ㅇ영님

저는 풍수해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지급사례들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 다른 분들이 가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2018년 9월쯤, OO지역에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때쯤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연락을 많이 받았고, 무던하게 사고접수를 하였 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평범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수해보험 실무책자 등에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있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해야만 풍수해보험에 가입되고 보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 사항

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합법주택일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미등재 합법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등재 합법주택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건물을 조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는데, 피해를 보신 분은 화를 많이 내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집이고,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어려워, 피해자 분은 동주민센터나 시청을 통해 보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항의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 보상업무 팀은 피해보상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고, 결국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당연히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은 주택 소유자로 반파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아 4,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적은 보험료로도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2019년 풍수해보험 실무책자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산세만 내고 있다면 보상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저 사건이 일어나고도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수해보험은 갈수록 제도개선도 되고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물

공무원 박○호님

저는 읍 사무소 건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020년 7월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내렸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 직원들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했고, 계속되는 피해 신고 민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내리던 폭우가 잠잠해졌지만,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컴컴했습니다.

비가 잦아들어 각종 피해 보고와 도로유실, 농경지 유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할머니(정○○) 한 분이 집 일부가 무너져 본채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별채에 생필품과 가재 도구 몇 점만을 간신히 옮겨 놓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풍수해보험 업무를 해왔던 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분들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 보험료를 뜻 있는 후원 단체에서 후원해서 거의 무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피해를 보신 할머니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지팀, 주민복지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정○○ 할머니는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우리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흠으로 지어진 할머니 집은 많은 비로 일부 벽면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했고, 손해평가인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해평가인은 꼼꼼히 현장을 둘러보고, “보험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단정하긴 어렵다”며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보험사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재해현장, 민원현장을 다니며 정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2개월

이 지나 추석이 가까운 9월 말이 되었습니다. 재해 관련 업무를 차근차근 챙기면서 정○○ 할머니의 보험처리 확인을 위해 손해평가인에게 전화하였더니, 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벽체가 파손되어 당시는 거주를 할 수 없지만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라 ‘반파’로 결정되었고, 보험금 2,700여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피해를 본 정○○ 할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고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정○○ 할머니는 별채를 리모델링하여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 할머니의 사례를 보고 주변에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시골에는 아직 많은 집들이 흙집으로 지어져 있어,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발생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흙집이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증명서가 있으면, 풍수해보험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비로 바쁘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물 흘리던 모습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의 풍수해보험 이야기

설계사 장○구님

제가 풍수해보험과 인연을 맺은 것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교육을 받은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매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풍수해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된 저는 풍

수해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입대상자를 실사하고 점검해 정리하는 일들이 새롭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해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그 해 태풍 ‘곤파스’로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풍수해보험의 의미에 대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을 알렸습니다.

그 후, 풍수해보험 보상금을 받았던 주위 분들 상당수가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가입하셨는데, 그 중 3,5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OO 사장님의 지급 사례가 기억납니다.

정OO 사장님은 보험에 가입하고 2017년 11월 1번, 2018년 9월 2번 등 총 3번의 태풍과 강풍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우스 시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고, 손해사정사의 실사를 거쳐 보험금 1,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OO 사장님은 덕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고, 지인 중에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개받은 농장 중 하나가 박OO 사장님이 운영하는 4,500여 평의 꽤 규모가 큰 농장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위험을 예측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컸지만, 농장 사장님은 고지식한 성격 때문인지 그 동안 잦은 피해에도 하늘의 뜻이려니 하고 별도의 대책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OO 사장님 농장은 이번 마이삭 태풍 때 강풍으로 하우스 파손이 심각했습니다. 하

지만 미루고 미루다 피해 직전이었던 8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4,00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험사들의 노력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계절성 피해가 치명적이었고 풍수해보험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생긴 인식의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을 그저 하늘의 뜻에만 맡긴 채 피해를 온몸으로 감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의 인식이 깨어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때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진심으로 풍수해보험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 삶 또한 '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피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히ㅇ봉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OO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올해 봄, 고객에게 문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상담을 요청해오신 것입니다. 원래 제주도 출신이 아닌데 몇 년 지내다 보니 태풍의 위력에

많이 늘라서 보험에 들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객분과 미팅을 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입까지 도와드렸습니다.

2020년 8월 어느 쉬는 날, 그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쉬는 날에 걸려온 전화라 직감적으로 풍수해 관련 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통화해보니 역시나 며칠 전 강타한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전화였습니다. 태풍에 건물 지붕 기와가 깨지거나 날아갔고, 건물 외벽 피해와 현관 유리 출입문 파손 등 꽤 피해를 본 듯했습니다.

저는 사고 메뉴얼에 따라 피해 사진들을 잘 찍어 두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리와 복구 비용에 대한 경비비용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라고 전했습니다.

그 후 고객분과 SNS를 통해 수리 및 보상청구 상황을 간간히 들었고, 보름이 훨씬 지나고 추석을 며칠 앞둔 날 주택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됐다고 휴대폰에 공지가 왔습니다. 보상금액은 몇만 원 보험료를 낸 거에 비해선 아주 만족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고객 분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동네에 유일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혼자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님은 내년 갱신 때에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 봐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책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료 할증도 없고 피해위험이 있다고 인수를 거부하는 일도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여름 기후를 분석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는 강원도 홍천 기온이 41도로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고,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들어닥쳐 관측 이후 역대 최다 태풍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54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로 곳곳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기상악화로, 폭우, 폭설,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에게 풍수해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필수이자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화재나 교통사고는 본인이 어느 정도 주의하고 관심을 두면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이상기후 같은 자연재해는 본인 의지와는 별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수해보험, 꼼꼼하게 가입하고 알차게 보상받으세요!

설계사 김○기님

저는 OO보험사 보험설계사입니다.

최근 2년간 우리나라는 태풍, 집중호우 같은 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과 피해가 있는 지역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갈수록 보상과 지원범위가 늘어나고 있어 다른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풍수해보험도 꼭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실손 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상품이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상가를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 큰형은 OO시 OO해변에서 횃집을 운영합니다. OO해변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항상 범람하여 주변 지역이 침수된다고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운영 시 형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제안했고, 형님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9년 큰형은 집중호우 때문에 상가가 침수되어, 냉장고, 식탁 등 집기가 넘어지고 물에 젖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입했던 풍수해보험은 건물 부분만 가입되어 있어 보상받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는 일반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야외 간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꼼꼼히 확인해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1년 보험료 159,300원 중 31,900원은 저희 형님이 납부하고, 127,400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었습니다.

2020년 9월 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또다시 침수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상가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며 이수라장이 되었고, 테이블 등의 집기 피해뿐만 아니

라 어항까지 깨지는 바람에 어항 속 물고기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사고조사 등이 빠르게 이뤄졌고, 10월 초에 보험금 7,04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금 덕분에 형님은 영망이 된 바닥과 마루를 공사했고, 물에 젖어 쓸 수 없게 된 테이블 등 집기를 새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하면 누구나 힘들지만, 특히 소상공인에게 재해 피해와 복구는 심적, 물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집중호우와 매년 찾아오는 대형 태풍 등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많은 분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재산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홍보하고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 풍수해사고 발생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가 즐겨찾는 우리동네

설계사 최○선님

저는 2018년 10월 OO손해보험에 입사해 설계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로 근무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잘 알지 못

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농촌이나 온실만 가입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도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가입을 권하기에 부담이 없어 신입 설계사로서 활동기반을 다지기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상시 보험영업을 할 때 문전박대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풍수해보험 리플릿을 보여 드리면 오히려 고객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고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려가면서 한 명, 두 명 가입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0월 태풍 미탁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역시나, 제가 받은 계약 중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는 접수를 받고, 현장에 확인 차나가 보았는데 60대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산 밑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로 산에서 토사가 흘러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밤새 양수기로 물을 퍼내느라 밤을 새웠다고 하시는 겁니다. 혼자 집을 치우느라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하며 망연자실하고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본사 보상 팀에 서둘러 피해접수를 한 후, 복구작업을 지원하러 온 봉사원들과 함께 집안에 물건들을 모두 마당으로 들어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방안정리를 하려고 장판을 걷어보니,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범벅이 된 것들을 치우고 새 장판으로 교체해 드렸더니 어르신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며칠 후, 보험금을 받았다고 어르신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소식을 알리며 기쁨에 울먹이던 어르신의 목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감동입니다. 어르신은 저와 복구작업을 함께 해준 봉사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정중히 사

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올해 9월 초 태풍 하이선 때문에 지붕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했던 50대 후반의 남자분이 혼자 거주하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에 있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지붕을 덮쳤고, 파손된 지붕은 우선 천막으로 덮어놓았지만 집주인은 집을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어르신은 속상해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풍수해보험에 세입자 동산만 가입했기 때문에, 지붕파손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되고 가재도구만 보상할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르신께 동산에 대한 보험금을 받아 지붕을 수리하시고 거주하실 수밖에 없다고 안내드리고 돌아왔지만, 2020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자주 와서 지붕이 뚫린 채 방 안에서 지내야 하는 어르신이 걱정되었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분과 보상과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가능한 빠른 처리를 부탁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10월 초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다행히도 2020년부터 침수에 대한 보험금이 인상되어 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풍수해보험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설계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느낀 자연과 삶의 가치

설계사 류○상님

저는 타지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동해 바다 근처에 사는 것이 부럽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관광지로 바라보는 것과 직접 거주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강원도 해안가 도시는 지역 특성상 강풍을 자주 겪

습니다. 3년 전 환절기에 강풍이 불었고, 저는 집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남 일처럼 느꼈던 저는 피해 경험을 통해 이전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자연재해 담보 보험상품에 관심을 두었고,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련 상품과 담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재해 관련 특약과 국가지원을 통해 가입자 부담금을 낮춰주는 풍수해보험 상품을 비교하면서 여러 궁금한 사항이 생겨 보험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시청 재난안전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담당 주무관에게 풍수해보험에 관하여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대화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안가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재난안전과 담당 주무관과 함께 풍수해보험을 홍보하는데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건 가입을 위해 7~8번의 방문도 마다하지 않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풍수해보험이 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생각했을 때 기쁨이 따뜻해지고 현재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라는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해안 해안가에는 태풍이 들이닥쳤고, 태풍 피해로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면서 남겨진 가재도구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많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분들이 피해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영업에는 눈길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피해 현장 방문에 시간을 쏟았고, 무수히 많은 통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위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 수십 배는 많은 보험금이 전달되면, 이걸 정말 받아도 되

냐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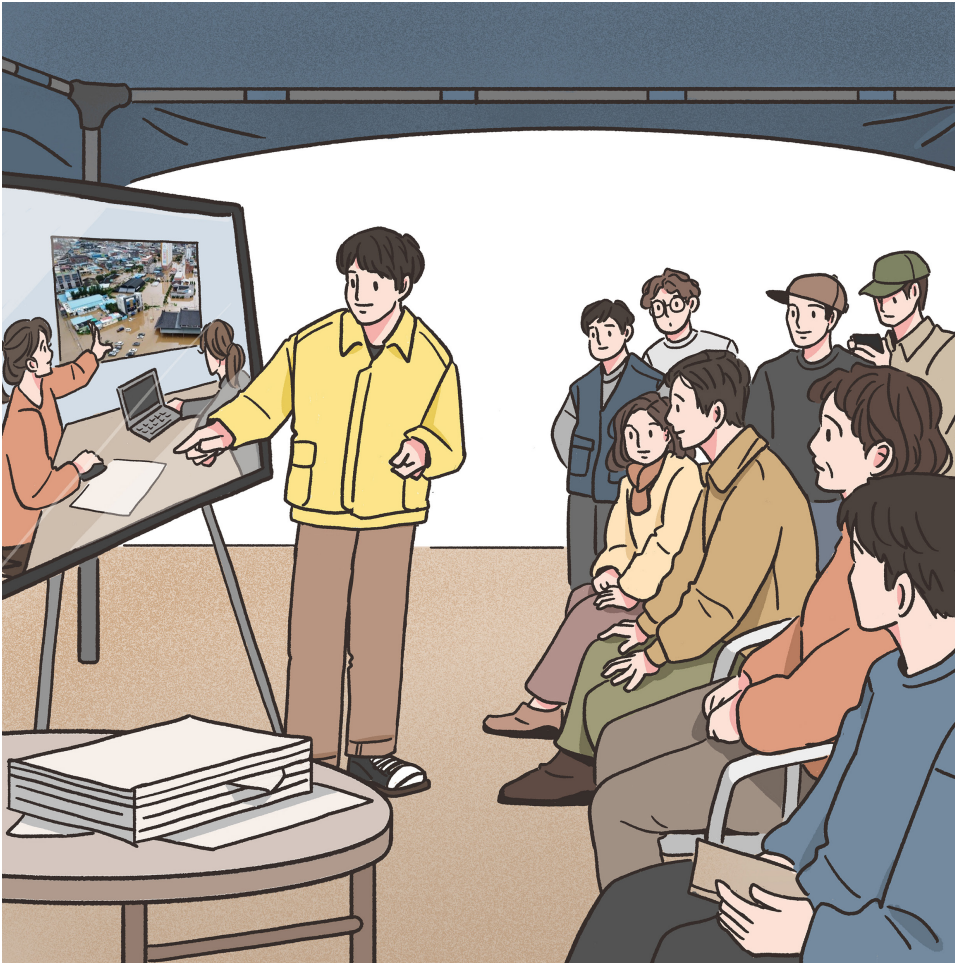
저는 이번 자연재해 이후의 보상 과정을 직접 겪었고 TV를 통해서도 풍수해보험의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대중매체에서 태풍에 대한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던 어느 날 TV에서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제 고객으로 태풍피해 보상을 받았던 분이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 뉴스 신문 기사에서도 제 고객을 만날 수 있었는데, 수해 이후 마을회관에서 한 달 가까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풍수해보험 보상금으로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또, 1년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너무도 큰 혜택을 받았기에 다른 주민 분께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판매 활동은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을 접하면서 저 또한 일 자체에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풍수해보험 현장 업무 시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주는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담보 범위가 시설에서 집기비품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며, 상품 보장 확대를 위해 보험사, 지자체, 행정안전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많은 분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필수품은 마스크! 소상공인들을 위한 필수품은 풍수해보험!

설계사 김○태님

저는 27살부터 약 16년간 보험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산한 늦가을, 뜨거웠던 지난 여름에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며 업무에 매진했

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느 달도 쉬운 달이 없었지만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큰 벽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보았을 때 온갖 기사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답은 소상공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더불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적을 위한 영업활동이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인데다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고 특히 경주에서 많은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20년은 유독 태풍피해가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8호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마이삭, 하이선 등의 태풍은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이는 태풍피해에 비해 서울은 비교적 태풍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주에 태풍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고, 우리가 3차례 출장을 통해 계약한 300여 곳 대부분 사업장에 태풍피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 오는 대표님들의 사고접수 전화로 9월 첫째 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는 다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대표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전화와 문자도 상당수 받았습니다.

사고접수와 대표님들 문의 전화로 바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8월 한 달 열심히 일한 결과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8월 당시에는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펜션 대표님께 홍보와 안내를 드리지 못해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과 진한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에는 “생생정보통”이라는 방송에서 풍수해보험전문가라는 타이틀로 개인 인터뷰를 하고 팀 동료들과 풍수해보험에 대한 회의를 하는 모습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주에서 피해를 보신 펜션 대표님도 해당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찍을 당시 정말 고생했는데, 방송에서는 1~2초 지나가는 모습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보험영업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안내하는 풍수해보험이 보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OO보험사 풍수해보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낸 태풍피해

소상공인 안○근님

저는 낮은 지대에 있는 건물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가 걱정되는 지역인데, 월세가 저렴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전광판에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홍보문구가 띄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과거 루사 때 피해가 떠올랐습니다. 루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 태풍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았던지.... 우리처럼 어려운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우연히 보험설계사를 만나게 되었고, 2018년부터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들에겐 보잘것없는 적은 재산이지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슈퍼에 물이 들어와 물을 퍼내고 바닥 청소를 해야 했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물에 잠겨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로 보험에 피해보상을 문의하니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바닥 보수 등 건물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보험금을 그리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 처분한 물건값에 해당하는 3백여만 원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세입자 자격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건물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설움이 복받쳤지만, 그래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덕분에 받은 보상금은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된 거 같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힘을 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무사히 삶을 다시 이어나가고, 코로나-19 또한 이겨내 경제가 살아나길 기도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일단 한번 가입해보시라니까요!

설계사 민○학님

저는 2011년 4월쯤 OO보험사에 입사하여 줄곧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저는 보험사에 입사하기 전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을 많이 알고, 비닐 온실을 운영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입사해 풍수해보험 상품을 접했을 때, 바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농업 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홍보물을 출력하여 현장에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농민들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꺼렸습니다. 그때는 정부지원금이 55%, 본인 부담금이 45%였는데, 보험료가 부담되었는지 크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설득으로 몇 분들이 봄에 보험에 가입하셨고, 그 해 여름 바로 태풍이 몰려와 풍수해보험금은 피해를 보았던 농업 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위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의 가입 문의가 많아졌고, 보상금도 지급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보상사례들이 많이 기억나지만, 최근 기억에 남는 보상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분은 경기도에서 비닐하우스 70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셔서 가입 절차와 보상 절차, 정부 지원 보험료와 본인부담보험료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우스 지번과 하우스 면적을 계측하고, 실사 사진도 찍은 후 견적을 뽑아 드렸습니다.

보험 가입 면적은 37,066㎡으로 1년 총 보장금액은 321,718,054원, 총 보험료는 7,586,700원이었으며 이중 정부지원금이 5,604,700원, 본인부담보험료는 1,982,000원이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자체의 지원율이 상이해 지자체별로 최저지원율은 52.5%, 최고지원율은 92%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례자분의 지역은 정부지원율이 74%로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사례자분은 2020년 7월 8일 보험에 가입했는데, 7월 24일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2동의 비닐이 모두 뜯겨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조사하고 바로 며칠 뒤에 885,319원을 보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연달아 지나갔고, 이번에는 23동의 비닐하우스 비닐이 날아가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전화를 하신 고객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고를 조사해 보험금으로 10,144,716원을 또 지급하였습니다. 사례자분께서는 감사해하시면서 너무 좋은 풍수해보험이라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님의 사례는 일부이며, 지금도 무수히 많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보상사례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공모전을 통한
풍수해보험 보상사례들
확인 하셨나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여러분들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세요.

2021년부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상가 /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공장



주택
아파트 포함




온실
농·임업



상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70%
~92%
정부지원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지자체별
추가지원

※ 일반 70%,
차상위 계층 78.4%,
기초생활수급자 87%,
재래취약지역 주택 87%,
소상공인 70% 기준지원
< 2021년 기준 >

가입방법은
5개 보험사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 > 가입과 사고신고 > 보험사소개

-  DB손해보험
-  현대에상화재보험
-  삼성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2020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